



기아차 노사는 19일 '이웃사랑 실천 결식이동돕기 급식지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고재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준겸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조남일 기아차 광주공장장.

###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 공동모금회에 결식아동 성금 2,16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는 19일 결식아동들을 돋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16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시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윤영월 서부교육청 교육장과 고재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조남일 기아차 광주공장장, 김준겸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급식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다 교육청과 각 학교들도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원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전달한 결식아동돕기 지원금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위치한 서부교육청 관할구역 내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주 남부경찰, 보안협력위원 27명 위촉



광주 남부경찰서(서장 김학영)는 지난 18일 오후 경찰서 회의실에서 새터민(탈북 주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27명을 위촉했다. <사진>

보안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서비스 ▲법률상담 ▲자격증 취득 ▲직업 알선 등 사회 각층의 전문인사들로 구성돼 앞으로 새터민들에게 폭넓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민정기자 viola@

### '정율성 선생 탄생지비' 19일 제막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 선생 탄생지비(地碑) 제막식이 19일 오후 선생의 생가터인 히딩크 관광호텔에서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경천 전국회의원, 강원구 광주시 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촉

▲배오인씨 3남 기호군 고점석 (광주서부경찰서 조사계)씨 장녀 영미양=23일(토) 오전 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우중기씨 장남 성육군 고철(나주중등증의원장)씨 차녀 지연(서울상계백병원 의사)=23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뉴힐튼호텔 3층 그랜드볼룸.

▲김재열(광주중앙여고 교장)씨 장남 흥록(신용보증기금)군 심천석 씨 장녀 현정양=23일(토) 오전 11시30분 상록회관 무궁화홀.

▲김기수씨 장남 성우군 박영근 (영암 동아전기 대표)씨 차녀 성애 양=23일(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방웨딩문화원.

▲김현구씨 막내 남열군 고준환 (전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사무처

###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자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기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에 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 ■동북공정 저지 '고구려 지킴이' 광주 사이버 의병

## "中 역사·문화 도발 우리가 막는다"

"고구려사가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이고, 한강 이북이 중국 영토입니다. 도대체 이게 도발이 아니고 뭐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저지를 위한 '고구려 지킴이 사이버 의병' 광주 회원들의 월례 모임이 열린 지난 14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동광주웨딩홀 6층 사무실에서 모인 9명의 의병들은 중국의 침략(?)에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광주 사이버 의병은 지난 2002년 중국이 동북공정을 본격화한 것에 대응, 서울지역 네이티즌 등과 함께 2003년 조직한 사이버 상의 조직이다. 광주 회원은 약 300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학생과 회사원들이며 매월 각화동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갖고 있다.

### 대부분 학생·회사원... '아군' 무간심 막 팔리자

광주 의병대장 김송란(28·회사원)씨는 "중국은 고구려사와 단군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 있다"면서 "백두산은 중국의 10대 명산의 하나로 선정했고, 만천성에는 정부 예산으로 단군 공원을 건립해 대형 등너상을 세우는 등 한반도 대부분을 중국 영토화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사이버 의병들의 전쟁은 중국의 '동북공정' 실체를 모든 시민들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의 중국 여행 중단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맞춰져 있다.

의병들은 근무 중 쉬는 시간이나 수업 후 친구들에게 동북공정에 관한 실시간 자료를 보낸다. 이어 시청과 법원·경찰청·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비롯 각급 학교, 기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북공정에 관한 글을 펴 냈다. 이밖에 모임이나 회식이 벌어지면 아침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동북공정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 '동북공정' 실체, 학교·간공시 홈페이지에 꺼 날라

의병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200개의 관공서 게시판에 매일 동북공정 저지를 위한 글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1천개의 학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이버 의병의 전쟁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한다. 침략군(중국)이 거대해서가 아니라 아군의 무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김형정 의병(여·22·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3년)은 "중국은 최근 고조선부터 밟아온 이르는 우리 역사를 중국 변방 속국의 역사로 교과서에 실었고, 아리랑도 중국 소수민족의 노래로 와곡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들에게까지 '지금 할 일은 공부'라는 말을 들을 때면 힘이 풀린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구려지킴이 광주 사이버 의병들이 지난 14일 월례 모임을 마친 뒤, 광주 지역 기업체와 관공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동북공정의 실상과 저지를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보내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 한국 여성외교관, 유엔 고위직 발탁

### 외교부 강경화 국장... 유엔 인권 副고등판무관 내정

"인권은 유엔의 3대 업무의 '축' 중 유일하게 확장돼 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핵심에 위치한 부고등판무관으로 임명받은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9일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 (Deputy High Commissioner)에 내정된 강경화(51·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은 "인권이사회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간 의견을 수렴,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유엔총회 참석자 뉴욕에 머물고 있는 반기문 장관을 수행 중인 강내정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을 받아 공식 임무를 내년 1월 제네바에서

시작하게 된다.

강국장은 앞으로 유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관련' 업무의 핵심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엔이 결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규범이 회원국들에 의해 잘 지켜지는지를 관찰하고 때로는 회원국들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 필요하다면 회원국들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서 제네바 본부에 약 300명 정도, 그리고 그의 지역 사무소에 약 2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는 큰 조직이다.

부고등판무관은 또 인권 문제 협의체인 인권이사회가 올해 새로 출범함에 따라 회원국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기본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아버 고등판무관을 보좌한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협의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중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어문학 광주·전남지회

### '국어사랑...' 책 200권 증정



한국어문학 광주·전남지회

20일 박진동(시진)씨의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책 200권(100만 원 상당)을 광주시교육청과 초등학교에 증정했다.

###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 해양대서 名博 학위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한국 해양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전 해경청장은 지난 11일 부산시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오기온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강희락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정포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년 7개월동안 해양경찰에 대한 학신을 수도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등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전 청장은 사시 24회로 경찰간부로 임용된 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인천수사과장, 경찰청 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지난 2004년 1월부터 2년7개월동안 해양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 변호사로 임용된 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인천수사과장, 경찰청 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 노동부 공무원의 진솔한 '남도답사'

### 김세곤 법무행정팀장 '남도문화의...' 펴내

"남도땅을 돌아다니면 남도 문화에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공무원이 남도땅에서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흔적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김세곤(53) 노동부 법무행정팀장이 최근 펴낸 '남도문화의 향기에 취하여'라는 책은 강진·해남·영암 등 전남도내 시군의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를 찾아다닌 현장 답사기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6개월동안 전남도 14개 시·군 구석구석을 돌며 채집한 사료와 사진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부영 이중근 회장, 베트남에 칠판 13만 8천개 기증



"지금 당장 베트남에서 사업으로 이익을 내기보다는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18일 하노이의 베트남 교육훈련부에서 열린 기증식을 끝으로 베트남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칠판 13만 8천개를 기증한 이중근(사진) 부영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기증식에 참석한 응웬티엔년 베트남 교육훈련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이 칠판 한 개로 50명이 수업한다고 치면 전국에서 연간 700만명, 10년간 7천만명의 어린이들이 한국과 부영을 고마워하며 공부를 하게 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 ▲재광 영암 미암면 항우회(회장 김재균) 모임 = 27일(수) 오후 7시 해태촌, 010-8822-5425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최영관) 이사회 = 26일(화) 오후 6시30분 수원왕갈비, 368-2300

### 모집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모집 = 학식·양식·중식·일식조리, 미용·제과·제빵, 피아노·컴퓨터 기초과정 및 자격증반, 문의 375-0035~6

### 부모

▲창녕조씨 광주·전남청년회 = 21일(목) 오후 7시 광명혜를다문. 010-6688-8983

▲광산이씨 치촌피 종종회 이사회(회장 이인기) 모임 = 23일(토) 오전 11시 충정회관. 365-1626, 361-6688

▲장흥위씨 재광 청·장년회(회장 위승우) 분기회 = 26일(화) 오후 6시30분 한우마을. 011-602-9727

### 향우회

▲조대부중 20회·부고 21회 동창

▲김재옥씨 별세 영숙·봉금·경순·임순씨 부친상 장진섭·공진명·임근석·장만두씨 빙부상=발인 21일(목) 금호장례식